7대 종교, 봉암사서 종교 가치 되새기다

종지협, 이웃종교 성지순례차 봉암사 방문

문경 봉암사=윤호섭 기자

출산율 감소 등 사회현안 공감
봉암사 마애불 순례…화합 다져
진우 스님 "후대 전승에 노력"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한국을 대표하는 7대 종교 수장들이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인 희양산문 봉암사에서 현대사회 종교 가치와 수행정신을 되새겼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는 11월 20일 문경 봉암사에서 이웃종교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성지순례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장 이용훈 주교가 불교계에 봉쇄수도원 같은 성격의 수행처가 있는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물어보면서 마련됐다.

조계종립 특별선원이 있는 봉암사는 1947년 성철 스님을 비롯해 청담 · 자운 스님 등 당대 내로라하는 선승들이 '부처님 법대로 살자' 는 기치 아래 용맹정진한 수행처로 유명하다. 또한 연중 부처님오신날 하루만 산문을 열어 일반인이 참배하기 힘든 사찰이기도 하다.

성지순례에는 진우 스님을 비롯해 이용훈 주교, 정서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이 각 종교를 대표해 동참했다. 사찰 안내는 봉암사 주지 진범 스님이 맡았다.

대표단은 선열당에서 점심공양을 마친 뒤 보림당에서 한국사회와 종교계가 직면한 여러 현안을 공유했다. 이용훈 주교는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을 언급하면서 "서울은 합계출산율이 0.6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신부뿐만 아니라 스님이 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가톨릭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봉암사 경내를 둘러보는 대표단.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이용훈 주교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진우 스님은 사회적 현상으로 인한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불교적으로 보면 바다에 돌 하나 던져서 생기는 파도와 같다. 인간이 보는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거나 논할 수는 없다"며 "개개인부터 각자의 의무를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많은 사람들이 유교를 종교보다는 하나의 도덕 가치로만 받아들이는 현상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종수 관장은 "종교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의예지를 실천하는 것 자체가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유림에선 그렇게 보지 않는 시선도 있다"며 "유교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종교를 유교라고 밝힐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수 관장의 이 같은 고민에 진우 스님과 이용훈 주교는 유교가 보다 종교적이기 위해선 연속성을 가진 의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표단은 차담 이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을 순례하면서 이웃종교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불교학계 거목인 서경수 교수(1925~1986)에게 1년간 불교를 배웠다고 밝힌 이용훈 주교는 순례 내내 불교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주교는 "봉암사는 조용히 정진하는 수행처이자 나름의 규약으로 인해 방문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의 배려로 오게 돼 기쁘다"며 "수천년을 견뎌온 자연환경과 깨끗이 정돈된 산사가 인상적이다. 스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보물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나상호 교정원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불교를 대표하는 청정수행도량에 올 수 있어 영광"이라며 "수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 산문에 들어오면서부터 전율을 느꼈다. 많이 보고 배우고 간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이웃종교 수장들의 감사 인사에 "먼 곳까지 흔쾌히 같이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며 "사찰과 자연환경이 앞으로 후대에 제대로 전승돼 우리나라의 큰 보물로 가치가 이어지길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태고 보우 국사 위상 강화 추진"

태고종, 11월 17일 학술대회
종단 정통 · 전통성 확립 위해
'석옥-태고 계맥' 연구 계획도

태고종이 태고 보우(1301~1382) 국사의 위상 연구 · 조명을 통해 종단 정통성과 전통성 확립에 나섰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은 11월 17일 서울 종로 사간동 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고려 말 태고 보우 국사의 사상적 형성과 전개' 를 주제로 '제5차 태고종의 정통성 · 전통성 확립을 위한 학술대회' 를 개최했다.

입재식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종조 태고 보우 국사가 한국불교 종조로 선양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특히 임제 선사의 19세 법손인 석옥 청공(1272~1352) 선사와 그 가르침을 전해 받은 태고 보우 국사와의 관계를 심도있게 조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실제 태고 보우 국사는 1346년에 중국으로 들어가 1347년 석옥 청공에게 인가를 받고 가사를 전해 받아 고려 임제종의 적통을 이었다. 백운 경한(1299~1347) 선사도 1351년 천호암에서 석옥 청공 선사에게 법을 묻고, 인도 선승인 지공 스님(?~1363)에게 사사 후 1352년 귀국했다.

상진 스님은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에 참석한 중국불교 스님 90명이 양주 청련사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석옥 청공 선사가 주석했던 사찰의 주지 스님도 참석해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내년에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면서 "태고 보우 국사의 법이 한국불교 정통 적자임을 알릴 수 있도록 종조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이는 태고종 종도로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로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나서 태고 보우 국사에 대한 연구와 조명이 활발히 이뤄진다면 한국불교의 종조가 태고 보우 선사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석옥 청공-태고 보우의 계맥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에서는 태고 보우 국사의 선사상의 연원과 한국불교사적 위상 등을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김진무 충남대 교수는 '중국 임제종의 법맥 전승과 태고 보우의 선사상' 을 통해 석옥 청공 선사에게 임제의 법을 계승한 태고 보우 국사의 선사상 면면을 살폈다.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원증국사 태고 보우의 위상' 을 발표한 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태고 보우 국사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 △구도와 정법계승 △간화선 수행 체계화 △현실적 개혁 통합 정신 △호국적 불교관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중일 기자


11월 17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종사 · 명덕 법계 품서식. 종사 · 명덕은 승랍 30년 이상이어야 자격이 주어지는 종단 지도자급 법계다.

'지도자 상징' 종사 · 명덕 법계 품서

법계위원회, 11월 17일 조계사서 품서식 봉행

조계종단의 지도자급을 상징하는 종사 · 명덕 법계의 품서식이 봉행됐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법산)는 11월 1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사 · 명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종사 법계 대상자 비구스님 38명과 명덕 법계 대상자 비구니스님 38명이다. 종사 · 명덕 법계는 승랍 30년이 돼야 자격이 주어지며, 최고 법계인 대종사와 명사 법계 바로 아래에 해당한다.

이날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법계위원장 법산 경일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세속의 온갖 장애를 이겨내고 종문의 스승이 된 것을 경하했다. 성파 대종사는 "출가할 때의 그 서원대로 위로는 생사해탈의 본분사를 해결해 법등을 전하고, 아래로는 대자비심을 발하여 고통 받고 상처받은 중생들을 교화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교육원장 범해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종사 · 명덕 법계는 구도의 열정으로 깨달음을 추구해온 치열한 수행정진을 높이 평가하고, 지도자 역량을 갖춘 수행자라는 것을 인정받는 공적인 자리로 종단의 핵심이자 종도들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법계"라고 설명한 뒤 "여러분 모두가 교단의 중추로서 적시에 종단과 종도의 마음을 읽어가며 일념의 정진으로 사부대중에게 법익을 베풀 수 있는 교화의 덕목을 갖춘 종단 발전의 역군이 돼 달라"고 말했다.

품서식에서 품수자를 대표해 법계증은 보관 · 명오 스님이, 가사는 각평 · 청진 스님이 받았다. 스님들은 새로 받은 21조 가사를 이마 위로 들어 올려 정대하고 종단과 불교발전을 위해 한층 더 정진할 것을 서원했다.

윤호섭 기자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임명

조계종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에 법원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법원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종단 주요소임을 맡아왔던 경륜과 경력으로 군종교구의 안정과 화합을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 스님은 "원장스님의 말씀 명심하고 노력하겠다"며 "교구 구성원들과 소통을 통해 화합하는 것을 급선무로 하고 전법에도 진력하겠다"고 답했다. 법원 스님은 이날 종단 핵심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하며 한국불교 발전을 기원했다.

한편 군종특별교구는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 취임 및 제55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 를 봉행할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